

第 4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4. 12. 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4 • 12 • 통권 제40호

I.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부 록	
1. 의사일정(안)	1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12월 1일 (목요일) 1시 25분

議事日程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개회식
2.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케이지나 루보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연설의 건

附議된 案件

1. 개회식
2.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케이지나 루보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연설의 건
4. 회의록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 개회식

(11시 25분)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주 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27분 개의)

[제44회-제1차]

2.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7분)

● 부의장(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충청북도교육위원
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는 12월 1일, 1일간으로 하여
모스크바시 고려인학교의 설립및 운영에 공
헌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초청되어 우리 도
를 방문한 케이지나 루보 러시아연방 교육
부차관 겸 모스크바시 교육감으로부터 연설
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
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일, 1일간으로 결
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케이지나 루보 러시아차관 겸 모스크
바시 교육감 연설의 건

(11시 28분)

● 부의장(의장직무대행)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케이지나 루보 러
시아차관 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연설의 건
을 상정합니다.

연설장에 입장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 기자들 인터뷰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
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 소란)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 러시아 방문단 일행이 입장하고 있습
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의장님으로부터 러시아연방 교육부
차관 겸 모스크바시 교육감과 모스크바
1086종합학교 엄넬리교장 일행에 대한 환영
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동시통역)

존경하는 교육위원여러분, 정인영교육감
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본청 국
·과장을 비롯한 교육동지와 언론계 인사 여
러분!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교육부 차관이시며
모스크바 교육감으로 계신 케이지나 루보
박사의 연설을 듣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
련하였습니다.

본인은 먼저 본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를 대
표하여 케이지나 루보 박사와 그 일행의 방
문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방문과 연설을 계기로 한국
과 러시아의 교육협력을 위한 획기적 발판
이 마련되고, 학생 및 교사의 교류 등 국제

교육 교류를 통한 양국의 교육발전과 선린우호의 증진을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도는 우리나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예로부터 청풍명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름높은 충절의 고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13개 대학 및 전문대학, 403개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560개 초·중·고등학교가 활기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준높은 교육문화의 고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경제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한 학교 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국제화와 지방교육의 특색있는 발전은 결국 다가오는 21세기의 지구촌을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평화와 복지의 세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러 양국은 이제는 러시아의 개방정책에 따라서 냉전시대의 높은 벽을 허물고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협력을 순조롭게 이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는 더욱 깊은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케이지나 루보 박사께서는 유독히 한국을 사랑해 주었으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방문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학교의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고,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여 주었으며, 현재의 학교건물 1층 8개 교실을 한국학교로 사용토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러 양국의 교육정보의 교환과 학생·교사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양국의 교육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의 확대에 더욱 힘써 주시고 양국의 선린우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케이지나 루보 박사의 뜻깊은 방문과 연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국 방문이 한·러 양국의 교육협력을 보다 굳건히 이룩하고, 두 나라의 선린우호를 다져주는 큰 결실로 맺어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충청북도 교육계와 더욱 공고한 유대를 맺어 주시고, 본도 교육의 국제화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동안 편안한 일정이 되어 주시길 손모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다음은 케이지나 루보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 겸 모스크바시 교육감으로부터 연설을 들

[제44회-제1차]

으시겠습니다.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케이지나 루보

(11시 58분)

(동시통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김영세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를 참석하신 교육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와있는 러시아 교육장들의 대표단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석하신 분밖에, 여기 또 한명이 사할린 주 관리국을 대표하는 분이 서울에 계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지 않은 대표단이 충청북도를 방문할 기회를 받아서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와서 한국 교육제도를 더 잘알기 위한 모든 조건을 받았으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교육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어떤 개혁을 실시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시의 교육감으로서 케이지나 차관이 여기에 서울에 와있는데 그래서 책임자로서 여기서 얻은 교훈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한국 경험을 얻어서 러시아에 옮기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경험을 배우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는 다민족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스크바에는 120개이상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교육간부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여러 민족 젊은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 정통문학을 배우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족교육을 새로이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몇가지 성과가 벌써 이룩되었습니다.

그 성과들 중의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한국 교포들을 위한 책을 마련하고 그의 학교를 벌써 몇년동안 성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제일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는 아주 경험이 많고 제도가 발달된 교장이 있는 곳입니다.

교장님 노력으로 그 학교가 설립하고 지금 아주 성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교장님은 오랫동안 러시아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족자존심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오래전부터 한국학교 설립하는데 대해서 꿈을 꾸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민족 자존심을 존경하면서 모스크바교육감은 민족학교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엄교장님이 하신 일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얼마전에, 며칠전에 엄교장님은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연방계 명예선생님 그런 칭호가 있는데, 엄교장님은 얼마전에 그 호칭을 수여받았습니다.

물론 한국 교포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모스크바 주재대사관도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스크바주재의 한국대사관도 교육감도 비록 바쁠지라도 한국학교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래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곳은 얼마전에, 얼마전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개방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년전에 러시아연방 초대대통령 고르바초프는 개방을 시작하고, 지금 그 개방화와 개혁이 아주 빨리 앞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여러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인 개혁이 실시되고 있고, 러시아는 새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에, 거의 경제적인 개혁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새로운 곳을 만들 때 아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곳을 쉽게 만들수 없습니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아주 성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을 수도 없는 많은 과정이 벌어져 있습니다.

종래의 통일된 독재적인 교육제도로부터 우리가 제도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교육제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와 학생의 임무를 창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외에 운영방법도 지금 많이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관료기관들 중, 새로 종류로 된 관료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제도는, 제도의 중심이고 기본은 학생이에요. 지금 학생을 제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사회의 일원은 자유롭고 창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부에 가서 여기도 와있을 때, 아주 뜻깊은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의 학생들의 미래, 우

[제44회-제1차]

리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려는, 그 애기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교육자와 한국 교육자들의 기본목적은 같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국 교육분야 직원들과, 러시아 교육분야 직원들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조를 아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관님께서 어제 한국 교육부차관님을 만났을 때 러시아 교육장관이 자기 상대방에게 보내주신 모스크바에 방문할 초청장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모스크바를 방문할 초청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만일 러시아나 모스크바를 방문하시게 되려는 모스크바 교육감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기꺼이 맞이하시겠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게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기 고상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4. 회의록서명위원 선출의 건

(12시 1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박병해,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병해,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폐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감 정인영,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시설과장 박성근.

부교육감 박동기,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재무과장 이상찬.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 44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4.12. 1 -12. 1.(1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12. 1(목) 11 : 00 11 : 30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4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케이지나 루보 러시아 연방 교육부 차관겸 모스크바시 교육감 연설의 건 【 제1차 본회의 산회 】 ※ 폐회	회 기 12. 1.(1일간)

